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남 미 현

극동정보대학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

A Study on the Formation Factors of Grotesque Image expressed in Fashion

Mi-hyun Nam

Dept. of Fashion Design, Keukdong College, Concurrent Professor of Industry

(2002. 10. 11. 접수)

Abstract

Some factors had influence upon the grotesque image formation expressed in fashion : for instance, thanatos, religions, fin de siecle (end of the century), the aesthetics of ugliness, subculture group's resista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etc. Those factors have formed a grotesque while exchanging influence each other, and have following features:

First, the thanatos, which is destructive and aggressive instinct of the inner world of human being, creates frightening object and motif to form the images of grotesque.

Second, from religious point of view, the church made the Devil a tool for maintenance of power: They manipulated physical body and give a damage to it to sublimate it in holy existence, so that they could feel catharsis.

Third, there was fin de siecle (end of the century) to let people have negative life attitude, such as uneasiness on following century, eschatology, skepticism and nihilism, etc.

Fourth, the ugliness having unpleasantness and disharmony occupies governing position when our society becomes corrupted and uneasy, and the aesthetics of ugliness discloses the inconsistency of ideal and beautiful life in the grotesque images.

Fifth, subculture groups, i.e., the lower classes, homosexual and the youth's group, etc, form the grotesque images by political and ideological resistance, complaints and specific identity, etc concerning governing culture keeping traditional ethics consciousness.

Sixth, recent technology development has destroyed a boundary between human being and machinery, and bio-technology development has created transplant operation, plastic operation and other human body transformation operations, and genome research, etc has raised human being's identity.

Key Words: Grotesque image(그로테스크 이미지), The aesthetics of ugliness(추의 미학),
Thanatos(타나토스 : 죽음의 본능), Subculture groups(하위문화집단),
Fin de siecle (end of the century : 세기말)

I. 서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과거에는 드러낼 수 없었던 잔인하고 파괴적인 인간 본능의 모습들을 예술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과격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현대 예술의 경향은 세기말의 시대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여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왜곡, 과장, 변형, 유머, 혐오, 잔혹 등과 같은 충격적인 이미지로 현대 사회의 현안 문제점들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정신과 표현방식들 가운데 특히 그로테스크는 과장되고 희극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기괴하고 불쾌한 이미지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심리적 부조화와 소외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로테스크는 단지 현대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초기의 장식물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어, 16세기 매너리즘시대, 프랑스혁명기, 낭만주의, 19세기말, 20세기말 등 투쟁과 격변으로 점철된 혼란한 사회와 고전적인 미의식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득세하여¹⁾ 나타났다.

더욱이 복식에서의 그로테스크현상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시대 이후 빈번히 나타나며,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세기말적인 영향으로 더욱 충격적인 표현을 시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왜곡되게 보여지고 있다.

복식에서의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는 최정화²⁾, 박은경³⁾, 김유경⁴⁾의 연구가 있지만 그로테스크의 외형적 특징 분석에 그치고 있어, 그로테스크 형성의 원인분석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정립하고, 복식에서의 그로테스

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정신분석학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로테스크가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문화적 표상물임을 확인해줄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와 관련 패션지의 사진과 인터넷 등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적 분석 범위는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조형예술과 복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의 복식은 프레타 포르테(Pret-a-porter)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그로테스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그로테스크의 개념

그로테스크(Grotesque)는 ‘괴이한’, ‘기묘한’, ‘우스꽝스러운’ 등을 뜻한다. 그 어원은 이탈리아어로 ‘동굴’ 혹은 ‘발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로테(grotte)이며, 형용사형인 그로테스코(grottesco)와 명사형인 그로테스카(la grottesca)가 생겨났다⁵⁾.

그로테스크는 1480년경 고대 로마 네로 황제의 유적이 발굴되었을 때 벽화에 나타난 양식으로 동물계·식물계·인간·반인반마(半人半馬)·반인반수·목신(木神)을 포함한 신화적 형상이 융합된 형태⁶⁾를 보였다. <그림 1>



<그림1> 그로테스크문양, 1607년경,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p.67)

1) Philip Thomson, 김영무 역 (1986). 『The Grotesque』, 서울대학교 출판부, p.14.

2) 최정화(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 박은경(2000).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관한 연구. 안양과학대학 논문집, 23권.

4) 김유경(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1990년대 무대의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Philip Thomson. 전개서, p. 17.

6) Adams, J. L. and Wilson, Y.(1997). The Grotesque in Art Literature, Eerdmans, pp. 5-6.

이러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원형은 그리스 신화에서 발견되는 극도로 고풍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그리스 고전기부터 저속한 변방의 양식으로 간주되어 공식 영역에서 추방되어 독자적인 비교전 양식으로 잔존하였다⁷⁾.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문학과 비미술 분야로 확대된 것은 프랑스의 경우 16세기 경인데, 라블레(Rabelais)는 이 말을 신체부위를 묘사하는데 사용하여 그로테스크 신체라는 개념을 부각시켰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18세기에 캐리커처(caricature)와 관련됨으로써 '우스꽝스러운', '뒤퉁그러진', '부자연스러운 것',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무절제, 환상, 개인적 취향, 유기체의 자연스런 상태의 거부와 같은 그로테스크의 특징들이 조롱과 배격의 대상이 되었다⁸⁾.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로테스크가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로테스크에 내재된 웃음과 공포,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란 양면성을 지닌 그로테스크의 미학적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전개되었다⁹⁾.

특히 빅토르 휴고(Victor Hugo)와 체스터튼(Chesterton)은 그로테스크를 공상보다는 사실에 관계시키는 한편, 그것을 숭고와 대비되는 미학적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그로테스크가 갖는 무한한 다양성을 강조하였다¹⁰⁾.

20세기에 이르러 1957년 독일의 비평가 카이저(W. Kayser)는 「예술과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에서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그로테스크가 비로소 주

목할 만한 미학적 분석과 비평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테스크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로테스크는 친숙한 세계가 갑자기 낯설어진 것, 소외된 것의 표현이라는 견해와 함께 그로테스크를 죽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공포에 관계시켰다¹¹⁾.

카이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하이트드 지이크(A. Heidsieck)는 그로테스크 현상을 '기형화(Deformation)' 나 '사실의 왜곡(Entstellung der Realitat)'으로 보았다.

미하엘 바흐친(Mikhail Bakhtin)은 카니발(Carnival) 그로테스크를 대두시킴으로써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고 예술의 소통적 차원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시각에 부합할 뿐 아니라, 파편적 신체와 신체의 물질성을 강조하였다¹²⁾.

필립 톰슨(Philip Thomson)¹⁴⁾은 그로테스크 개념을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동시에 끔찍한 것, 과장과 극단, 비정상성으로 규정하고 부조리, 캐리커처, 패러디, 풍자, 아이러니 개념과의 상관성을 통해 그로테스크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크리스찬 톰젠(Christian W. Thomsen)은 그로테스크는 이질적인 부분들(식물적인 것, 동물적인 것, 인간적인 것, 기계적인 것)이 새롭고 독자적인 단일체로 혼합되거나 융합되어 이미 인정된 규범들을 전도시키고, 기대영역에 환멸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¹⁵⁾.

최근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 예술에서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논점은 인간 소외와 공포, 비극을 강조하는 카이저의 정신분석학적인 언캐니(Uncanny) 그로테스크와 물질적 신체, 이중적,

7) 김홍희(1997). 미국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연구-나르시즘과 그로테스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203.

8) Phillip Thomson. 전계서, pp. 17-18.

9) 신창규(1995). 뒤렌마트 희극의 근본 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p. 20.

10) Phillip Thomson. 전계서, p. 17, 22-23.

11) 상계서. p. 14.

12) A. Heidsieck(1971). Das Grotteske une das Absurde im Modernen Drama, Sprache und Literatur 53, Stuttgart-Berlin-Kon-Mainz, S. 20. 김정옥(1997).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희극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와 현실비판,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9-30, 재인용.

13) 김홍희. 전계서, p. 204.

14) Phillip Thomson. 전계서, pp. 14, 27-79.

15) 장미숙, 양숙희(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3), p. 438.

왜곡, 변형, 비천함을 주장하는 바흐친의 사회주의적인 카니발(Carnival) 그로테스크 이론을 기초로 두 축을 이루며 양자가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¹⁶⁾.

이상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여러 개념적 정의들은 중세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확성을 상실한 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것은 그로테스크라는 의미자체가 고유한 형태가 없는 개념이며, 고정되고 안정되기보다는 부단한 진행의 과정¹⁷⁾에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1〉 그로테스크의 개념 변화

시 대	그로테스크 개념	대표 인물		
로마시대	-식물, 동물, 인간, 건축이 현대 얽혀 결합됨.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움.	Vitruvius	공상적	부정적
16C	-신체부위를 묘사	Rabelais		
18C	-거친 상상력의 산물, 초자연적이며 모순적인 것, 놀라움, 우스꽝스러움, 공포감, 당혹감	Wieland	사실적	공정적 (예술적 개념) (미학적 범주)
낭만주의	-과장과 익살 -블랙 유머 -사실의 영역 -추한 것	F. Schlegel Jean Paul Victor Hugo		
20C 전반	-갈등, 소외, 풍자, 부조화	Chesterton Clayborough		
20C 후반 (포스트모던)	-왕면적인 것, 대립적인 것들의 격렬한 충돌, 소외	W. Kayser		
	-왜곡, 변형, 비천함	M. Bakhtin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곱씹스러운 것, 비정상성 지나침과 과장.	P. Thomson		

Ⅲ.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 요인

1. 정신분석학적 요인

1) 인간의 본성: 죽음의 본능

프로이트(S. Freud)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에로스:Eros)’과 함께 ‘죽음의 본능(타나토스:Thanatos)’이 잠재되어 있으며, 삶의 현상은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협력작용 및 대립작용이라고 한다. 에로스는 자기보존의 본능, 종족보존의 본능, 자기애, 대상애 등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타나토스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을 의미한다.

타나토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존재의 소멸, 정체성의 상실, 에로스와 삶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본능, 곧 죽음이다¹⁸⁾.

죽음 본능의 최종 목표는 고통이나 욕망이 없는 출생이전의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려는 욕구와 같으며, 이는 인류문화 전반에 걸쳐 원형적인 심상응로 나타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죽음의 본능은 1차적으로 자기파괴, 2차적으로 외부, 즉 공격본능으로 나타난다고 한다¹⁹⁾.

이러한 모든 생명체 내에 잠재되어 있는 죽음으로 회귀하려는 성격은 외부적인 환경에 억압되며 죽음 본능의 에너지는 필연적인 변모의 과정을 겪게된다.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론은 인간의 자기파괴성 인식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으며, 문화에 대한 불만에서 물질문명이 진보하고 성장할수록 이에 따르는 잠재적인 자기파괴력은 증대해간다고 보았다²⁰⁾.

인간의 어두운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그로테스크는 예술에서도 죽음에의 탐닉으로 표현된다. 고딕 스타일의 회화나 사진에서 폐허나 시체, 절단된 신체, 음산한 폐가 등에서 끈질기게 되풀이되는 죽음에의 상징을 발견할 수 있다.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는 「살로메」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핏줄기 위에 핀 한 송이 꽃처럼 솟아오르게 표현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2〉

런던의 신예 아카디우스(Akardius)는 피와 신체의 장기를 보여주는 듯한 충격적인 의상을

16) 김홍희. 전제서, p. 214.

17) Geoffrey Galt Harpham(1982), On The Grotesque, Princeton University, p. 14.

18) 강영계(2001). 「정신분석이야기」, 건국대학교 출판부, p. 396, 388.

19) 「Pascal 세계대백과사전」(1999), 동서문화, v. 25, p. 14598.

20) 전영순, 박남희, 김동연(1999). S. Freud 관점에서 본 Gustav Klimt의 작품에 나타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상징적 이미지, 미술치료학회, 6(1), p. 193.

보여주는데<그림 3>, 이처럼 복식에서 그로테스크는 심뜩한 오브제나 문신, 죽음을 상징하는 모티프를 사용하여 인간의 죽음의 본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 문화적 요인

1) 종교

그로테스크적 표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중세의 기독교와 관련이 깊다. 「책(珊)형도」, 「다로의 복음서」, 「켈스의 서」등 복음서 필사본에 그로테스크한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권력이 중심세력이었던 중세에는 그들의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고자 천국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악마가 필요했다.

중세 후기, 그노시스주의자(gnosticisim)²¹⁾들은 인체의 물리적인 본성을 혐오하고 부인했으며 인체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의 제약으로부터 영혼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개체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3-16세기 유럽은 종교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체의 조작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찼다. 남녀 성인(聖人)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몸에 칼을 박거나 채찍질 당하거나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²²⁾.

부자연스런 신체 상태와 과정, 삶에 있어서의 불가사의한 고통, 시체의 부패 억제와 향기가 나는 것, 고통과 질병이 하느님을 만나려는 자아의 신성하고도 복잡한 육체적, 심리적, 성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중세 그노시스주의의 규칙과 교리 그리고 인체의 조작이나 손상은 물리적인 인체에 대한 거부의 표시가 아니라, 인체를 신성한 존재(divine presence)로 승화시켜 가

는 황홀한 카타르시스의 수단이었다²³⁾.

15세기 말,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imus Bosch)는 종교혁명의 풍파시대에 살면서 악(惡)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과 기발한 풍자를 가해 신의 섭리에 반한 종말관적인 세계상을 그려²⁴⁾ 당시 사람들에게 이단자, 악마의 창조자라고 불렸다. 그의 작품인 「지상적 쾌락의 정원, 1500년경」에서는 인간, 동식물 및 여러 기타 사물들을 섞은 괴이한 형상으로 혐오스럽고 잔혹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동시에 사물의 왜곡에서 기이한 우스꽝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4>

14세기 후반 정교한 헤드 드레스는 비난을 받았다. 악마가 천국으로부터 추방될 때 그런 뿔을 썼었기 때문에 자연에의 위배뿐만 아니라 영혼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²⁵⁾.

「La Tour Landry」에 의하면 이것은 때때로 패드를 넣어 둥글게 말은 형태로 되어 있어 여성들의 허영심의 증거이며 악마들이 좋아하여 종종 양쪽 뿔 사이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고 했다. 어떤 여성들은 교수대 같은 높고 긴 에닝(pynnes)을 단 철사로 보강된 헤드 드레스를 입기도 했다²⁶⁾.<그림 5>

19세기 고딕문학(gothic)의 중심주제는 '괴물(monster)'이었다. 당시 빅토리아시대에는 도덕적, 종교적 그리고 관습적인 억압으로 인하여 윤리적인 부르주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대표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는 등장한 흡혈귀(vampire), 좀비(zombie), 늑대인간(werewolves), 그리고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의 피조물이나 미스터 하이드(Mr. Hyde)같은 인조괴물(man-made monster)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상징물들이었으며 비기독교적이며 영혼이 없었다²⁷⁾.

21) gnosticisim: 중세의 신비주의적 이단교도.

22) Caroline Walker Bynum(1989). The Female Body and Religious Practice in the Later Middle Ages : In Fragments for a History the Human Body, New York:Zone Books, p. 163.

23) 전개서, pp. 170-171.

24) H. W. Janson(1991), 이일 역. 「서양미술사」, 미진사, p.179.

25) Aileen Ribeiro(1986), Dress and Morality, N.Y.: Holmes & Meier Publishers, p.52.

26) T. Wright(1868). The Book of Knight of La Tour Landry, ed. and intr. London, p.29. Aileen Ribeiro(1986). Dress and Morality, N.Y.: Holmes & Meier Publishers, p.47. 재인용.

27) 이의정(1997).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17-18.

1970년대 후반부터 '고딕'은 대중음악과 영화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드라큘라로부터 시작된 오랜 공포영화의 전통에서부터 고딕 스타일은 기괴하고 독특한 미학을 통해 인간의 어둡고 추하고 병적인 비정상성을 보여주었다.

복식에서 고딕 스타일은 유령·흡혈귀·마녀 같은 메이크업과 엉클어진 헤어스타일·검정색 복식과 중세적 모티브의 사용으로 드라큘라 패션이나 악마주의 패션<그림 6> 등의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형태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은 종교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세기말 현상

세기말의 일반적인 현상은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현재에 대한 회의 및 향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종말론, 회의론, 신비주의 등이 기승을 부리거나 향락주의와 에로티시즘이 번창하기도 한다²⁸⁾.

19세기말은 지식인, 예술가, 무정부주의자들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게 된 불안 심리를 표출한 시기였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제국들이 쇠퇴하였으나, 현대화를 통한 군사 대국화와 막바지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이런 시대 상황은 전쟁의 공포, 불확실성, 허무, 퇴폐 등으로 인하여 싹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일반 대중에게 야기 시켰다.

이 시기에 나타난 상징주의(Symbolism)는 형상의 변형과 왜곡을 통하여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성과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상상의 세계, 비물질적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뭉크의 「절규」에서는 붉은 핏빛 하늘, 다리 난간에 홀로 서서 양쪽 귀에 손을 대고 괴로워 소리치르는 인간이 마치 해골과 같으며, 병적인 근심, 불안감, 심리적인 긴장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7>

19세기말이 주로 죽음에 의한 사회적 불안이 팽배하였다면, 20세기말에는 포스트모던이란 시대 상황으로 조망해 볼 때, 인류에게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여겨지는 AIDS 문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오존층 파괴(Depletion of the Ozone Layer), 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같은 주로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물리적인 원인으로 죽음이 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²⁹⁾.

또한 1990년대 말에는 '말세론' 또는 '종말론'과 함께 등장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95년 일본에서는 오움진리교(眞理教)에 의해 동경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이 일어났고, 유럽 및 미국에서 일어난 사이비종교 태양사원의 자살 사건 등이 그 예다. 그리고 마법과 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피하려는 군중 심리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세기말 사상의 영향으로 대중들은 좀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세기말에 가까이 갈수록 극단화되어지는 현상이 복식의 역사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16세기말에 극단적으로 커진 러프 칼라와 소매, 과도한 허리조임은 인체의 자세와 비례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했다. 19세기말에는 버슬이 점차 커졌고, 버팀대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 당시의 패션 전문가였던 워드마저도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로테스크하였다³⁰⁾.

90년대 말에도 윤리도덕의 타락 현상과 그에 따른 성도덕의 문란으로 향락주의가 만연하였으며,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애그로 패션(Aggro Fashion)이나 오싹한 데테스터(Detester)적인 뉴로틱 패션(Neurotic Fashion)³¹⁾이 자주 등장하였다.<그림 8>

28) 배수정(1999), 근세이후 여성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2(1), p. 115.

29) 서영철(2000), 포스트모던 세기말: 죽음(의 공포), 새한영어영문학, 42(2), pp. 455-487.

30) 배수정, 전계서, p. 118.

31) 뉴로틱 패션(Neurotic Fashion)은 '신경질적인'이라는 의미의 광고 용어에서 비롯된 용어로, 밝고 건전한 느낌의 모양이 아니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3) 추의 미학

추(醜)란 미와 상반된 것이며, 고대로마학자들에 의하면 미는 '형식의 조화에 있다', '조화가 있고 일정한 비례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고 하였으며, 추는 '조화되지 않은 것', '비례에 맞지 않는 것', '통일성이 없으며 경화된 것'이며, 이식(理式)에 통합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을 말한다³²⁾.

근세로 오면서 후기 중세 기독교적인 세계 이해에 반하여 부정적인 회랍적 사고에 따른 미를 초월한 추로 발전하여 좀더 긍정적, 적극적 의미로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바로크,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예술에서 보여지듯이 추가 점점 예술세계를 잠입하게되자 미학에서도 추의 미적 의의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타났다.

18세기에 이르러 추의 개념이 서서히 미학범주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8세기 말이 되면서 시민계급의 성장에 따라 장식 대신 표현을 추구하는 취미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자본주의와 도시화의 발달로 인하여 추의 미학이 탄생하였고, 디킨스와 보들레르 등 공업도시 작가들은 추를 찬양하였다.

19세기의 도시와 산업자본주의는 새로운 미의식을 낳았는데, '자연스러운 것'이 '미적'이라는 등식관계는 끊어졌으며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과장되고, 변형된 것조차 새로운 산업적 취향의 미적 기준에 의해서는 '미'가 될 수 있었다.

로렌크란츠(Karl Rosenkranz)의 「추의 미학(Aesthetic des Halichen, 1853)」에 의하면 예술이 이념의 현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미와 부정적인 추가 서로 얽혀 있다고 했다. 추는 미의 자극제가 되고, 추를 통하여 가능해 짐을 논하였다.

낭만주의 예술은 꿈, 상상, 광기, 죽음, 폐허, 악마성, 비극, 송고미, 동물적 생명력, 무의식 등을 주제로 하여 질서, 비례, 균제, 조화를 표현

하는 고전주의에 맞서 반역, 모순, 감정, 불균형을 기도하였다. 오로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추한 것까지도 그려내었다.

현대에도 불쾌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추의 사상들은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와 초현실주의, 팝아트, 행위예술, 비디오 아트, 페미니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사조아래 표현되어 왔다. 그 예로 초현실주의 화가인 달리(Salvador Dali)의 작품에서는 인체의 해체와 왜곡을 통하여 환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9>

복식의 역사에서도 프랑스혁명 후의 앵그르와 야블(incroyable)은 이전까지의 남성복과는 판이한 극도의 치장으로 기묘한 복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덩수룩한 머리에 불균형하게 큰 빨간 칼라를 젖혀놓은 상의에 턱밑까지 높게 감은 크라바뜨(cravatte)에 꼭끼는 쿨로뜨(culotte)를 입고 양쪽으로 각이진 모자나 원추형의 특이한 모자를 쓰고 옛 귀족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등 기묘한 차림을 보였다³³⁾. <그림 10> 또한 19세기의 낭만주의자들의 복식도 역시 소수 엘리트 집단의 특수한 정체성의 표출이며 기존의 가치와 미적 질서를 탈피하여 복식에서 새로운 취향과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의 미학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사회가 부패되고 불안해질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복식에서 추의 표현은 추를 통해 아름다운 삶의 이상에 모순을 폭로하고자하는 것이며, 복식의 표현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패션에 활기를 부여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하위문화 집단의 저항

하위문화 집단은 엘리트 문화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으로 상류사회에 대한 하류 계층, 이성애자(異性愛者)에 대한 동성애자,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집단 등을 말한다. 이들은 전통적 윤리의

32) 박선규(1995). 추(醜)와 미(美)의 한계, 미술세계, 7월, p. 186.

33)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p. 293-294.

34) Dick Hebdige. 이동연역(1998). Subculture, 현실문화연구, pp. 8-9.

식을 지켜나가는 지배문화에 대해 의도적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특정한 정체성을 외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표상 된다. 패션을 통한 하위문화의 저항은 계급과 성에 대한 모순이 뒤얽혀 있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탈주하려는 더 솔직한 욕체적 자기발견이다³⁴⁾.

1760년-70년에 영국의 젊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마카로니(macaroni)패션은 허영심, 무책임성, 여성적임, 귀족의 애국심 결여의 상징³⁵⁾으로 조소의 대상이 된 전형적인 의상이었다. <그림 12> 띠를 두른 마카로니식의 가발, 가벼운 실크스타킹, 악세사리를 착용하였으며, 마카로니의 의미는 불합리로 치달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어휘로 사용되었다³⁶⁾.

1954년 처음으로 사용되어 놀라움과 혐오, 그리고 거부이기조차 한 미술양식으로 받아들여졌던 팝 아트(Pop Art)는 현대의 거대도시, 그 속에서의 '대중적 삶', 도시 안에 갇혀서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들을 그로테스크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팝아트는 특히 성(性) 본능의 표출로 음욕, 타락, 병적인 잔인성을 표현하였는데, 앨런 존스(Allen Jones)의 「모자걸이 테이블 의자」라는 작품은 여성의 형상을 테이블로 무생물화 하여 성을 상품화하였다. <그림 11>

사회적 우월과 열등의 표시로서 정의 내려진 계급과 성 정체감에 대한 강요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불만을 야기했고, 이러한 불만은 패션을 통해 토로되었다. 즉 댄디(Dandy), 모즈(Mods), 히피(Hippies), 펑크(Punk) 등의 하위문화와 팝 가수들과 배우들의 공연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의 패션은 계급과 성, 인종적 정체감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³⁷⁾.

19세기 댄디의 외모는 부르조아의 저급한 취미에 대한 반감을 표했고, 낭만주의의 우울, 권

태, 불행 등의 병적 취미가 지고의 미로 찬양되었다. 강하고 활동적인 전통적 남성미는 이후 댄디에 의해 해쓱하고 날씬한 남성,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남성미로 대체되었다. 극단적인 경우 댄디들은 여성의 코르셋을 착용하여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둥글게 하고 가슴을 불룩하게 함으로써 여성적인 나약함을 표현하기도 했었다³⁸⁾.

1967년경부터 미국의 히피들은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와 평화를 부르짖었으며,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사이키델릭(psychedelic)음악과 환각제의 복용을 통하여 모순된 사회의 거부감³⁹⁾을 표현하였다. 히피는 너털거리고 바랜 의상, 맨발, 빗질하지 않은 엉킨 머리, 씻지 않은 몸, 계절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조합 등의 적합하지 않은 외모로써 60년대 후반의 그로테스크 패션을 대표하였다.

1970년대 말 경제적 공황으로 대규모 실업자들의 출현과 더불어 현대 사회의 이기 속에서 나타난 펑크는 '하급의 것', '똥내기', '젊은 악한', '젊은 방랑자'를 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반항과 불쾌감을 그 특징으로 한 집단을 말한다. 러셀(Douglas A. Russel)이 펑크를 사회적 개념이 의미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⁴⁰⁾이라고 규정했듯이, 펑크 패션은 검정색 의상에 위협적인 금속 징, 찢어진 티셔츠, 안전핀, 염색한 머리, 검정 눈·입술화장, 검정 글씨의 깃발 등으로 절망·공포·공허를 표현하여 허무주의·히스테리·폭력 그리고 성의 혼돈양상을 그로테스크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13>

청소년 또는 하류 계층 못지 않게 엘리트층의 에 도전하는 중요한 하위문화 집단은 게이와 레즈비언이다. 1970년대의 새로운 이론들은 이성

35) V. Steele(1988). Paris Fashion, London: Oxford Univ. Press, p.108.

36)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p. 299.

37) 이민선(2000).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9.

38)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5-37.

39) G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N.Y.: Prestel, p. 86.

40) 이윤주(1996). 사이버 펑크 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pp. 59-60.

41) 이민선, 전계서, p. 32, 85.

애를 특권화 하려는 목적의 역사적 과정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였고, 이것에 상업적 힘이 편승되면, 동성연애자들은 패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⁴¹⁾.

최근 보여지는 대중문화의 이상 중에는 동성애적 감흥이 표현된 성적 특성이 모호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5) 기술의 발달

기계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산업혁명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을 가져왔고, 산업이 하이테크화 되고 인간생활의 편리성이 강조될수록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며 특히 고도의 기술집적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는 우리의 실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인간을 열등한 기계의 부품으로 변화시키는 비인간화를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이식수술, 성형수술 등의 인간신체를 둘러싼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발달은 신체 변형을 가능케 하였으며, 게놈(genome) 연구에 의해 인간의 신비가 벗겨지고 해체되는 상황은 인간 고유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당시의 테크놀러지의 산물이며, 20세기 첨단 이론인 인공 두뇌학(Cybernetic)과 반항적 성향을 띤 펑크 스타일이 가상현실 속에서 과학적 허구와 합성된 것을 의미하는 사이버 펑크가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과격한 공상과학 소설작가나 컴퓨터 범죄자를 의미했으나, 이제 음악, 미술, 신경정신의학 그리고 최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펑크의 대표적인 형상은 사이보그(cyborg)라 할 수 있으며, 사이보그는 자연적 신체와 인공적 기계의 결합으로, 초기 그로테스크적 양식을 취하고 있다. Blade Runner, Mad Max II, Robocop 등의 공상과학 영화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원시적 요소와 하이테크적 요소를 결합한 잡종교배 양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즉, 사이버 펑크 스타일은 기계적 과학 매개체를 중심으로 한 고무튜브, 가스 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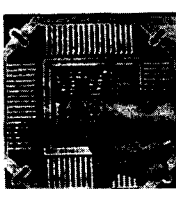

크, 전자회로나 홀로그램, 로봇 팔 등 하이테크 소재의 산업 폐기물로부터 브리콜라지(Bricolage)를 창조한다.

〈그림 14〉는 반도체 칩과 회로로 장착된 사람의 뇌를 디지털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림 15〉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은 인간신체 내부의 혈관과 신경조직 대신에 반도체회로와 여러 전선가닥으로 구성된 미래의 인간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인공심장과 유전자 변형 등 여러 생체공학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적 모습을 구현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테크놀러지의 발달은 패션에서 신체를 하나의 오브제로서 분리, 합성, 왜곡,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신체로 개조가 가능하며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인간의 정체성 상실의 문제가 제기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 요인을 정리하면(표 2)와 같다.

〈표 2〉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정신분석학적, 사회 문화적 요인

그로테스크 형성 요인	내용	예술	패션	대표적인 Look
정신분석학적	<p>죽음의 본능</p> <p>*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p> <p>*문화에 대한 불만, 물질문명의 진보할수록 자기파괴력은 증가한다.</p>	 <p>〈그림2〉A. Beardsley, 「살로메」, 1894년경, (Die Moderne, BECHTERMUNZ, 1989, p.2509)</p>	 <p>〈그림3〉Arkadius, '01 S/S (www.firstview.com)</p>	Goths Fashion
사회문화적	<p>종교</p> <p>*중세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마를 도구화함.</p> <p>*중세 이단교도들은 신체의 조작이나 손상으로 신체를 신성한 존재로 숭화시켜가는 카타르시스의 수단으로 보았다.</p>	 <p>〈그림4〉보쉬, 「세속적 쾌락의 정권」, 1500년경, (세계의 대미술관-III, p.135.)</p>	 <p>〈그림5〉헤드드레스 Gothic,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1997, p.155)</p> <p>〈그림6〉A. Mcqueen, '97F/W (www.firstview.com)</p>	Goths Fashion
	<p>세기말 현상</p> <p>*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종말론, 회의론, 허무주의등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된다.</p> <p>*데카당스 (Decadence) 데테스터 (Delester)</p>	 <p>〈그림7〉몽크, 「절규」, 1893년경, (새로운 자평산-미술사의 이해3, 1995, p.593)</p>	 <p>〈그림8〉A. Mcqueen, '97F/W, (www.firstview.com)</p>	Aggro Fashion Neurotic Fashion Goths Fashion
	<p>추의 미학</p> <p>*추를 통해 아름다운 삶의 이상에 모순을 폭로하고자하는 것이며, 복식의 표현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패션에 활기를 부여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p>	 <p>〈그림9〉S. Dali, 「내란의 예감」, 1936년, (세계의 대미술관-v.10, 현대미술 II, 1989, p.65)</p>	 <p>〈그림10〉Incroyable, 1796년, (Colin McDowell, The Man of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p.48)</p>	Incroyable Hippies Punk Grunge
<p>하위문화 집단의 저항</p> <p>*하류계층, 동성애자, 청년집단 등은 전통적 윤리의식을 지켜나가는 지배문화에 대해 정치적 이념적인 저항, 불만과 특정한 정체성을 표현한다.</p>	 <p>〈그림11〉Allen Jones, 「모자걸이 테이블 의자」, 1969, (세계미술대사전-IV, p.1021)</p>	 <p>〈그림12〉macaroni, 1770년, (Aileen Ribeira, Dress and Morality, p.111)</p> <p>〈그림13〉Punk, 1982, (Colin McDowell, tashion today, London:Phaidon, 2000, p.372)</p>	Macaroni Dandy Mods Hippies Punk Grunge Goths	
<p>기술 발달</p> <p>*기술의 발달로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이식수술, 성형수술 등 신체 변형이 가능하게 되고, 계층 연구 등으로 인한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p>	 <p>〈그림14〉Denna des Rioux, 「Digital Graphics on polyester」, 1997</p>	 <p>〈그림15〉A.Mcqueen, '99F/W, (www.firstview.com)</p>	Technos Cyber Cyberpunk	

IV. 결론

비정상적이며, 과격하며, 혐오스러운 반면 동시에 재미와 웃음이 섞인 아이러니한 산물인 그로테스크는 무한한 다양성의 형태로 새로운 창조 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인한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는 패션에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대중들에게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이 또 하나의 미적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죽음의 본능, 종교, 세기말 현상, 추의 미학, 하위문화 집단의 저항,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로테스크를 형성해 왔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내면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본능인 죽음의 본능(Thanatos)으로 인하여 섬뜩한 오브제나 모티브로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둘째, 종교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마를 도구화하였으며, 신체의 조작이나 손상으로 신체를 신성한 존재로 승화시켜가는 카타르시스의 수단으로 보았다.

셋째, 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문화에 종말론, 회의론, 허무주의 등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되는 세기말 현상이 그 형성요인이다.

넷째, 불쾌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추는 사회가 부패하고 불안해질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추의 미학을 통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운 삶의 모순을 그로테스크의 이미지로 폭로한다.

다섯째, 전통적 윤리의식을 지켜나가는 지배문화에 대해 하류계층·동성애자·청년집단 등의 하위문화 집단들이 지니는 정치적·이념적인 저항과 불만, 그리고 특정한 정체성이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요인이다.

여섯째, 기술의 발달로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이식수술, 성형수술 등 신체 변형이 가능하게 되고,

계놈 연구 등으로 인한 인간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점이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요인이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학적,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 무성하게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시화되어 현실의 숨겨진 이면을 충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삶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복식에서도 시각전환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참고 문헌

강영계(2001). 「정신분석이야기」. 건국대학교 출판.
 김영나 감수(1995). 「미술사의 이해」 I, II, III. 시공사.
 김유경(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1990년대 무대의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옥(1997). 프리드리히 뉘렌마트의 희극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와 현실비판.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홍희(1997). 미국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연구-나르시즘과 그로테스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규(1995). 추(醜)와 미(美)의 한계. 미술세계, 7월
 박은경(2000).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관한 연구. 안양과학대학 논문집, 23권.
 배수정(1999). 근세이후 여성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제 2권, 제 1호
 서영철(2000). 포스트모던 세기말: 죽음(의 공포). 새한영어영문학, 제 42권 제 2호
 신창규(1995). 뉘렌마트 희극의 근본 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이민선(2000).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주(1996). 사이버 펑크 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4권 6호.
 이의정(1997).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미숙·양숙희(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 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 8권 제 3호.
- 전영순·박남희·김동연(1999). S. Freud 관점에서 본 Gustav Klimt의 작품에 나타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상징적 이미지. 미술치료학회, 제6권 제1호.
-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Pascal 세계대백과사전」(1999). 동서문화. v. 25,
-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 최정화(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 Heidsieck(1971). *Das Grotteske une das Absurde im Modernen Drama. Sprache und Literatur 53*, Stuttgart-Berlin-Koln-Mainz.
- Aileen Ribeira(1986). *Dress and Morality*. N.Y.: Holmes & Meier Publishers.
- Caroline Walker Bynum(1989). *The Female Body and Religeous Practice in the Later Middle Ages*. In *Fragments for a History the Human Body*. New York:Zone Books.
- Colin McDowell(1997). *The Man of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 Colin McDowell(2000). *Fashion Today*, London: Phaidon.
- Dick Hebdige. 이동연 역(1998). *Subculture*, 현실문화연구.
- Geoffrey Galt Harpham(1982). *On The Grotesque*. Princeton University.
- G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N.Y.: Prestel.
- H. W. Janson. 이일 역(1991). 「서양미술사」. 미진사.
- James Luther Adams & Wilson Yates(1997). *The Grotesque in Art Literature*, Eerdmans.
- Philip Thomson. 김영무 역 (1986) . *The Grotesque*. 서울대학교 출판부.
- The Style Engine*(1998). The Monacelli Press.
- V. Steele(1988). *Paris Fashion*. London: Oxford Univ. Press.
<http://www.firstview.com>